

† <미사 및 본당모임 안내>	
금주 미사 독서: 홍진국 클레멘스, 한영주 리드비나	+ 지난주 우리의 정성 봉헌금: \$ 130 교무금: \$ 30 ----- 합계 : \$ 160
다음주 미사 독서: 이승환 안드레아, 황지혜 레지나	
금주 미사 복사: 김지원 카린	
다음 주 미사 복사: 우명희 카타리나, 윤지희 데레사	
이주현 안드레아, 이지는 월프레드	
금주 미사 해설: 윤보연 소화 데레사	
다음 주 미사 해설: 권민호 바오로	봉헌봉사: 전은숙 글라라
반 주: 조은영 베다, 황지혜 레지나, 강동현	다음주 봉헌봉사: 김태진 하상 바오로
회 계: 황성필 요한, 친교실 정리: 1 구역	
주 일 미 사 고 백 성 사 성가대 연 습 친교/간식 모임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 미사 전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지하 성가 연습실] 매주 미사 후 [지하 친교실]
† <공동체 모임 알림판>	
남성교우 기도모임	격주 금요일 (3 월 22 일 저녁 8:00, 사제관)
성모회 금요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오후 1 시 (장소: club.catholic.or.kr/thekccm 게시판 참고)
교리 모임	미정
골프 모임	동계 휴식기
테니스 모임	매주 일요일 (Nielsen Tennis Stadium, 시간: 페이스북클럽 및 홈페이지 참고)
† <구역모임 알림판>	
1 구역	매월 둘째주 토요일
2 구역	매월 첫째주 토요일
3 구역	매월 셋째주 토요일
대학원 구역	미정
학부생 구역	미정
† 오늘의 묵상	
오늘 복음에서 군중은 돌을 움켜쥐고 간음한 여인을 향해 던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들의 죄를 깨달을 수 있었고 비로소 왜곡된 정의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냥 자리에서 떠나 버렸지 예수님 앞에서 회개할 생각은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를 용서받아 지난 잘못에서 해방될 수는 없었습니다. 간음한 여인은 달랐습니다. 군중이 모두 떠나고 난 뒤에도 그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께 남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홀로 남겨 두고 조용히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의 용서를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군중과 달리 죄를 깨달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회개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문학가인 로이 레신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선생을 보내 주셨을 것이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사업가를 보내 주셨을 것이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의사를 보내 주셨을 것이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오락이었다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연예인을 보내 주셨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용서였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 주셨다.” 누구나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깨달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구세주의 자비를 청하며 회개하는 사람만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만이 지난날의 죄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갈 수 있습니다.	

주임 신부 유성모 요셉 (608) 293-1114 사목회장 이종재 프란치스코 (608) 772-5701				홈페이지 club.catholic.or.kr/thekccm Facebook 그룹 Facebook 검색에서 “매디슨 한인천주교회” 검색 이메일 kccmwi@gmail.com
사순 제 5 주일				2013년 3월 16일
<제 1 독서>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43,16-21 <제 2 독서>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 말씀입니다. 3,8-14				
화답송		◎ 주님이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주님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어 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 ◎ ○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 주님, 저희의 귀양살이, 네겐 땅 시냇물처럼 되돌리소서.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 뿌릴 씨 들고 옮겨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		
복 음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너그럽고 자비로우니, 이제 마음을 다하여 나에게 돌아오너라. ◎		
복 음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8,1-11 그때에 예수님께서서는 올리브 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온 백성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앉아서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때에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간음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워 놓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스승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소할 구실을 만들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몸을 굽히시어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졸곤 물어 대자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에 무엇인가 쓰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이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하나씩 떠나갔다. 마침내 예수님만 남으시고 여자는 가운데에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그 여자에게, “여인아, 그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여자가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영성체송] 여인아,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으리라.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오늘의 성가] 시작: 490 봉헌: 511 성체: 502 파견: 123				



‘돌직구’를 날리신 예수님!

사순절이 막바지로 접어들고 교회의 오랜 전통에 따라 자신의 죄를 살피고 고해성사를 통해 부활 대축일을 준비할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복음이야기는 과거의 죄를 캐묻고 처벌하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자비롭고 따뜻한 마음을 느끼게 합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모세의 율법이라는 아주 편리한 잣대를 가지고 있어서, 자신들에게는 유리하게(마르 7,9-13 참조) 타인에게는 가혹하게 사용할 줄 압니다. “오 하느님! 제가 다른 사람들, 강도 짓을 하는 자나 불의를 저지르는 자나 간음을 하는 자와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으니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루카 18,11)라고 어처구니없이 주절대기도 합니다. 죄인들이나 세리들과 거리낌 없이 교류하고, 안식일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이 행동하시는 예수님이 이들에게는 눈에 든 가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라는 기막힌 올가미를 사용하여 예수님까지 제거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예수님은 율법대로 여인을 돌로 쳐죽이는데 동의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명백한 현행범을 그냥 용서하자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돌팔매질에 대한 열정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은 듯합니다. 매스컴과 인터넷을 통해서 정치인이나 연예인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파헤치고, 때로는 근거 없는 소문을 무차별적으로 퍼뜨려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기도 하니 말입니다.

예수님은 몸을 굽혀 무언가를 쓰시면서 속고의 시간을 버십니다. 예수님은 땅에다 무엇을 쓰셨을까요? “남을 단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단죄받지 않을 것이다.”(루카 6,37) 아니면 “당신을 저버린 자는 누구나 수치를 당하고 당신에게서 돌아선 자는 땅에 새겨지리이다. 그들이 생수의 원천이신 주님을 버린 탓입니다.”(예레 17,13)라고 쓰셨을까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하느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기보다 이웃을 단죄하는 일에 더 적극적입니다. 이웃의 잘못에 엄격한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메마른 인간들에게는 지혜와 자비가 넘치는 생명의 샘이신 주님의 존재가 너무나 불편했을 것입니다.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한 이들이 끈질기게 재촉합니다. 예수님은 천천히 몸을 일으키시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요한 8,7)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돌직구’가 되어 진짜 돌을 들고 있던 이들의 머리와 가슴에 정확하게 꽂힙니다. 그토록 확신에 찬 행동을 보이던 이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간음한 여인의 잘잘못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하느님 앞에서 ‘돌’을 들고 있는 자신의 모습부터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객관적인 율법의 요구와 그 적용만이 하느님의 궁극적인 뜻이라고 생각했던 이들에게 예수님의 이 ‘돌직구’는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여인만이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자백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시는 죄짓지 마라.”(루카 8,11)는 말씀으로 과거의 잘못을 뒤우치고 새로운 삶을 다짐하는 여인을 진심으로 믿어주고 앞으로 잘 살라고 격려하십니다

김영국 요셉 신부/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사무총장

† 공지사항

- 경축 - 호르헤 마리오 베르골리오 추기경님께서 제 266 대 교황님 (프란치스코 1 세) 으로 선출되었습니다.
- 사순시기 관공성사 안내
부활 대축일 전 주님 수난 성지주일(3 월 23 일)까지 부활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고해성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미사 30 분 전 부터 고해성사를 드립니다)
- 부활전례 안내
3 월 23 일 (토) 주님 수난 성지 주일 - St. Paul, 오후 5 시,
3 월 28 일 (목) 주님 만찬 성 목요일 - Multicultural Center, 저녁 8 시
3 월 29 일 (금) 주님 수난 성 금요일 - Multicultural Center, 저녁 8 시
3 월 30 일 (토) 부활 성야 - Multicultural Center, 저녁 8 시
3 월 31 일 (일) 예수 부활 대축일 - St. Paul, 오후 2 시

Multicultural Center (1862 Beld Street, Madison, 박장 부근) 에 라이드가 필요하신 분은 신부님, 사목회장 이종재 프란치스코, 사목부회장 조남석 베드로, 행사 사목위원 심성신 알렉산드라, 김태진 하상 바오로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부활절 계란 작업 - 3 월 30 일(토), 사제관, 오후 1 시 - 3 시, 신부님과 함께 하는 즐거운 부활절 계란 만들기
- 다음 주 미사 후 황성필 요한, 성인영 마리스텔라 부부의 혼배 성사가 있습니다.
- St. Paul 기부 - \$2000



우리 공동체 소식

<3 월 미사전 묵주기도 지향>

3 월 기도지향은 새 교황님 (프란치스코 1 세)을 위하여 기도 드리겠습니다. 미사시작 20 분전에 묵주기도가 시작되오니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기도모임>

성모회 기도 모임에서 사순기간 동안 십자가의 길을 바칩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참아내셨던 십자가의 수난을 저희 마음에 새기면서 깊은 묵상과 기도로 주님의 자비하심에 기대어 보는 시간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평화와 기쁨과 고요함과 자기 절제의 길이라고 합니다. 많이들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장소는 Verona 에 있는 St. Andrew 성당입니다. 날씨와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여 모시기전 게시판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club.catholic.or.kr/theccm)

<독서단 모임(계속)>

독서 봉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은숙 글라라 자매님 (esjeon95@mac.com) 혹은 김보미 로사 자매님 (bomi921@gmail.com)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교적정리 (계속) >

교적 정리가 진행중입니다. 성당 입구에 비치된 교적 양식을 작성하셔서 교적을 담당하는 **홍진국 클레멘스형제**님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는 성당 홈페이지 게시판의 양식을 다운받으셔서 작성하신 후 메일로 (jkhong2350@yahoo.com) 보내주셔도 됩니다.

<성가대 모임 (계속) >

성가대원과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교우분들께서는 지휘자 한영주리드비나 (lidiwinahan@gmail.com) 에게 문의하시거나, 미사전후에 지하 Music Room 에 직접 들려주셔도 됩니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